

Who really cares for the soul?

(1 John 4:9-11)

“In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Today's Bible verses say that God "manifested" His love to us. How did He reveal His love? By sending His only Son into this world so that this world might live through Him. This act of God shows us His love. Real love is not in us loving God but in God loving us. Jesus' death propitiated, which means satisfied, the wrath of God concerning sin. In His love, through Jesus Christ, we become His children, and thus, able to love one another. What does it mean to love each another? It means that Christians care for the souls of others.

In our country, respect for parents is deeply rooted in Confucianism. Where as the Bible teaches children to respect their parents. Confucian ideology undermines God's truth in this matter. It teaches children not to give advice to their parents even when their parents do wrong. It instructs children to make their parents happy, no matter what the cost. If a child tries to persuade their mother or father in the ways of Christianity, they're told to leave mommy or daddy alone because they're too old to change. They're encouraged to let them have a good time in their own manner of happiness. They're counseled that their parents aren't going to change because that's the only lifestyle they're accustomed to. Christians understand that Jesus is the truth. Do you think not sharing the gospel with your mom or dad is really caring for them? Do you think that the happiness or comfort this earth has to offer is better than Jesus? Do you understand that without Jesus your parents are going to hell? Do you really care or do you just leave them alone and follow our culture's norms? Not challenging your parents, leaving them alone in their ignorance, is wrong. The morals of Confucianism bring your parents to hell. Do you really love your parents?

Jesus' disciples cried out to Him in the midst of a storm, "Teacher,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Mt. 4:38)? As they sailed in the boat, all the seamen thought they were going to die. They were angry that their teacher was asleep. They couldn't understand how He could sleep in such a life threatening situation. They asked Him,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Honestly, who strongly cares about cursed humans? Do you think unbelieving parents, children, brothers, sisters, teachers, politicians, or the president truly cares? Even

though they may say, "I care!", do you believe it? Look at human history. All these people live for their own success. They don't care about the eternal soul. Our current life experiences even show this to be the truth. So, who then really cares if you go to hell? The Lord God says, "As I live! I take not pleasure in the death of the wicked, but rather that the wicked turn from his way and live. Turn back, turn back from your evil ways! Why then will you die, O house of Israel" (Ezk. 33:11)? Jesus says, "In the same way, I tell you, there is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Lk. 15:10). Amen! My brothers and sisters, there is a celebration in heaven over one, just one, saved soul. Therefore, who really cares for the poor soul?

When we look at the Bible, who do we find that really cares for the soul? Foremost, we discover that our Heavenly Father, praise God, really cares. He promises that He is the grace of God. He is patient, merciful, and His love is immeasurable, "The Lord is not slow about His promise, as some count slowness, but is patient toward you, not wishing for any to perish but for all to come to repentance" (2 Pet. 3:9). Want to see what the Old Testament says,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and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compassion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Is. 55:7). Amen! God's Word tells us, "Turn to Me and be saved, all the ends of the earth; for I am God, and there is no other" (Is. 45:22). "All the ends of the earth" speaks volumes about how much God really cares for us and doesn't want to see us get punishment.

Not only do we have God the Father to care for us but also His Holy Spirit,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let the one who wishes take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Rev. 22:17). The Holy Spirit bids us to come because He really cares. Even Jesus mentioned the benefits of the Holy Spirit to us. "But I tell you the truth, it is to your advantage that I go away; for if I do not go away, the Helper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And He, when He comes, will convict the world concerning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Jn. 16:7-8). Amen! "Therefore, just as the Holy Spirit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as when they provoked Me, as in the day of trial in the wilderness" (Heb. 3:7-8). The Holy Spirit truly cares for your soul.

Who really cares for the soul? Jesus Christ! He calls out to us,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My brothers and sisters, there's no religion in the world that makes such an offer.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k. 19:10). Whoever is thirsty for truth, righteousness, love, comfort, or freedom, Jesus says,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Jn. 7:37). Jesus is the fountain of eternal life. He cares for your soul.

Who else should really care for the soul? Today's Bible verse tells us, "Beloved, if God so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v. 11). Real Christians care for the souls of others. Because God loves us like this, we should love others in the same way. Through Him we live! The Bible teaches us, "We know love by this, that He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the brethren" (1 Jn. 3:16). Self-sacrificing love is required of all believers. Do you want to love like that? We should really care about human souls. If you are a believer, you should really care because your parent, family member, or friend will go to eternal punishment without Jesus.

What's surprising is that even the rich man who died and went to Hades cared for his brother's souls. He begged Abraham to send Lazarus to his father's house (see Lk. 16:27-28), but it was too late (v. 31). If the rich man cared, how much more so should Christians? My dear friends, you should call upon God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for the poor soul. You should pray for them and tell them how much the Heavenly Father, Holy Spirit, and Jesus Christ care for them. You need to explain to that unbelieving soul how the grace of God, and you, really cares about their eternal destination, which will be hell without believing in the Savior of the world. Next week is Christmas, our time of worship in Jesus' coming to this earth. Tell your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about Jesus, and how this life is not about living richly but about saving souls. Ask them to come to God's house and experience Jesus firsthand. 🙏



김성관 목사

영혼을 돌보시는 이가 누구뇨?

(요일 4:9~11)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의 본체

오늘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참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에 있습니다. 대가를 완전히 치른 것과 같은 만족을 의미하는 예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진노를 품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돌보는 것

우리 나라에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유교의 관념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침식하고 있습니다. 유교 사상은 자신들의 부모님이 잘못했을 때마저도 그 잘못에 대해 충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행복하게 드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자녀가 그들의 부모님께 기독교 신앙의 길에 들어서도록 설득시키려고 하면,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그늘 내버려두라고 말할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 와서 신앙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듯한 행복한 몸가짐을 하고서는 더 자신이나 좋은 시간을 자지르고 자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상달할 겁니다. 그 이유가 부모님들은 단지 오랫동안 지내왔던 익숙하고 길들여진 생활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곧 진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지 않는 것이 진실로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행복과 위로가 제공하는 것이 예수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음으로 가고 있음을 아십니까? 부모님들을 홀로 남겨두고 우리의 문화적인 표준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도전하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그들의 부지름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유교의 도덕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돕고 갑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영혼을 돌보시는 분

예수의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서 외쳤습니다. “선생님 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아주 아니하시나이까”(막 4:38). 뱃사람들은 그들이 배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께서 이러한 죽을 지경인 것 상항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아주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정치학에 말해보십시오. 어느 누가 자신을 저주하는 인간에 대해 정성껏 돌보려고 하였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부모님, 자녀, 형제와 자매들, 선생님들, 정치인들, 또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그들이 “내가 돌보아 주겠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 말을 믿으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을 결코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생지는 인생에서 맛보는 이러한 경험은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간다면 누가 돌보아 주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신다 하라”(레 33:11).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 15:10). 아멘! 사랑하는 천령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한 영혼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영혼을 진실로 돌보아 주자 누구입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살피심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실제로 영혼을 돌보는 이가 누구라고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하신 약속은 은혜입니다. 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며, 그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미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보길 원하십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행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 55:7). 아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팔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음이라”(사 45:22). “팔 끝의 모든 백성”이라는 말에는 그의 백성을 향한 아주 많은 관심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돌보시며,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살피심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니 오라 하시는도다. 들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하시오니 돌리는 자는 없으니 생수를 받으라 하시니라”(계 22:17). 성령은 우리에게 오라고 명령하시는 데, 그 이유는 그가 정말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한 유약에 대해 우리에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설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7-8).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심을 격동하여 경야에서 시험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

지 말라”(히 3:7-8). 성령은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예수께서 보살피심

또한 누가 진실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사랑하는 천령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러한 우리를 돌보아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누구든지 진리, 의, 사랑, 위로, 또는 자유에 대해 목마른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주의 사랑에 젖은 자가 보살핌

그밖에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십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 4:11).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 자기 희생적 사랑은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 원하십니까?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진실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살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부모, 가족, 친구, 또는 친구의 영혼을 보살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간지는 열심으로

죽어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자기 형제의 영혼을 돌보려고 하였던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에게 구원받지 못하므로 자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부를 것입니다(창 27:26-28). 그러나 때에 이미 늦었습니다(창 31). 만일 부자가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천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에 의해 가난한 영혼을 돌보라고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들에게 하늘의 아버지와 천령의 예수께서 그들을 돌보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많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돌보라신 주께를 믿지 않으면 저주에 가게 될 그들의 영원한 목적지에 관해서 실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이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길로 오라고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라고 권하십시오. 오. ㅁ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이야기 - 셋 '알라' 아저씨



방글라데시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을 이용하며 이동 중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일이 떠오른다. 방글라데시에는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이 있지만 가난한 나라이기에 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하지만 그러한 교통 수단을 이용해 매끼린 길을 달리며 사람들과 신나게 떠들던 시간들이 그림자. 이런 교통 수단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말로 '알라'라고 부른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공공장소뿐 아니라 어디서든 외국인의 전도를 법으로 막고 있기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한 전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고 일대일로 이야기 가능한 알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알라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 대부분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 중에 리카 알라 아저씨 한 분이 생각난다. 리카 알라들은 다른 교통수단의 알라들보다 가난하고 힘없고 천대받는 제일 밑의 계층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손님들에게 '복시시'라 하여 늘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데, 특히 외국인 대상으로는 가격을 더욱 심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리카를 타면서 형상꽃이 보이는 알라 아저씨의 얼굴을 열심히 살피며 '이 사람은 가격을 얼마나 더 속여 부를까? 나는 얼마나 깎아야 되지? 내가 예수님 이야기들을 하면 이 사람도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짧은 기도를 마치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내가 예수님을 아다고 물었을 때 그때까지 말 한 마디 안 한던 아저씨가 나를 얼마간 쫓아내며 적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형상꽃만 보이는 아저씨의 얼굴을 나는 그래서야 자세히 보게 되었다. 유난히 눈빛이 반짝이는 것은 나의 생각이 옳을지도 모르지만 아저씨의 눈은 정직해 보였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놀라운 말을 하였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존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내가 믿지도 않은 말을 아저씨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목격지에 도착해 리카에서 내려면서 나는 그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아저씨는 단지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모든 알라가 요구하는 복시시는 커녕 내가 알던 길이나 아저씨가 아는 더 쉬운 길로 갔던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당연하고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방글라데시에서, 또 리카 알라들의 사회에서 그 아저씨의 정직한 행동은 자칫 생계를 위협 당하는 어려운 일이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이와 구별되게 행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음을 주님은 그 아저씨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기대함도 다져 부여주셨다.

천대받고 가난하지만 묵묵히 자기의 다리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알라 아저씨,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분명하다. 아저씨와의 마지막 인사가 떠오른다. '코다 하페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김서영 (단기 평신도 선교사)

리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을 위해 역(逆)으로 기도하자!

제16일 12월 2일(주일)

아이들을 위한 기도

1. 무슬림 아이들 가운데 성령의 기를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자. 특히 접근 제한 국가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자(마 19:14).
2. 수감된 세상과 고아들에게 쉼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도하자.

제17일 12월 3일(월)

아프리카산의 해리들을 위한 기도

1. 800년간 공식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사하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자.

제18일 12월 4일(화)

서 파푸아(미라니) 자야를 위한 기도

1. 서 파푸아에 강제로 이주된 무슬림들이 복음에 대해 열리도록 기도하자. 성령께서 무슬림들 가운데 기사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도록 기도하자.

제19일 12월 5일(수)

아라미리트 연한(EAE)을 위한 기도

1.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적인 정사와 권세와 영향력을 깨뜨리도록 기도하자(고후 10:3-5).
2. 크리스트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곳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자.

제20일 12월 6일(목)

플라니족을 위한 기도

1. 주께서 플라니인 제자들을 일으키시라 그들이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자.

2. 대부분 문맹인 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 주려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자.

제21일 12월 7일(금)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한 기도

1. 무슬림 주류인 루가족과 이람 이주민들은 거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 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도록 기도하자.

제22일 12월 8일(토)

중앙 아시아의 이슬람 근본주의의 발흥에 대한 기도

1. 이슬람 근본주의의 발흥은 마음 속의 안정과 소망을 향한 부르짖음을 담고 있는 경향이 많다. 중앙 아시아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83:1).

*위의 내용과 기도제목은 예수전도단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발췌합니다.

기도제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동형 (청년부, 강남병원전도팀장)

제가 처음 병원 전도팀에 오게 된 것은 어느 자매의 권면을 통해서였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는 전도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 마을이 내키지 않았습니. 그러나 일단 병원전도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전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여러 형태의 거부나 핍박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한 일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은 우리 전도팀의 한 자매가 어떤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 그 형제는 젊은 나이에 방탕하다가 오도마리 사고로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많은 상처 때문인지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자매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기도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사고)의 후유증으로 더러가 좀 불편하답니다)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지금은 전도란 것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배우고 알았기에 조금씩 전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부담감과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적도 모르게 이제는 이 시간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우리 주일 동안의 삶으로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병원에서 발견음을 향하게 합니다.

'심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세계관 11

인간 - 0점 조준이 안 된 존재

군대에서 총을 쏘다 보면 '0점 조준'이라는 것이 있다. 총 위에는 앞 뒤 가능쇠를 0점에 일치되게 맞추는 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총을 잘 쏘아도 과녁을 맞출 수가 없다. 이것을 모르는 신병은 가능쇠에 눈을 맞추고 총을 쏘다 과녁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다. 어쩌다 과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대로 제멋대로 간 총알이 어쩌다 들어간 것이지 조준했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죄란 이런 것이다. 길가는 누군가를 붙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황당한 눈길뿐인 것이다. 인간은 죄에 대해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양심적인 사람일지라도 '윤리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었다'라는 정도에 불과할 뿐, 누구도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로 물든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은 죄를 과녁을 빗나간 것'이라고 한다. 아무리 봐도 과녁을 맞출 수 없는 것이 죄이다. 왜 맞출 수 없는가? 0점 조준이 되어 있지 않아서이다.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가능쇠와 과녁을 조준한다. 그러나 0점 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의 눈으로 조준을 해도 과녁을 맞출 수가 없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존재가 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까닭이 이것이다. 자신의 눈으로 선함에 대한 것을 조준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어쩌다 총알이 들어가는 총알처럼(사실 누가 쓴 것인지도 모른다)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로 물든 인간은 선해질 수가 없다. 마치 0점 조준이 안 된 총을 아무리 봐도 과녁을 맞출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총으로 전쟁을 해서는 질 수밖에 없다. 세상의 인간들이 교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방황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영혼의 0점 조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영혼의 0점 조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분 자신이 영혼의 0점 조준을 맞추어 주시겠다는 초창이다.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내 영혼을 조율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 빨리 당신의 영혼을 0점 조준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14:6)

(다음주에 계속) (인양목 목사)

‘코이노니아 밤’을 마치고



것은 ‘즐거움’이었다. 젊음을 마음껏 표현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못한 코밤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내 질문에 실망하는 표정을 지은 임원들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즐거움’이 교회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만해도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다른 단체나 학교에서 행해지는 행사보다 앞서 있었다. 교회의 수련회 프로그램이 변형되어 학교 극기 훈련이나 수학여행의 메뉴로 등장했고, 교회의 문학의 밤 행사는 학교의 축제에 무한한 아이탬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화려함이나 규모에서 교회가 타 기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것은 비단 행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교회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교회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소위 ‘세상 따라잡기’이다. CCM(Christian Contemporary Music)도 역시 대중음악의 곡조에 기독교적인 가사를 붙여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기독교 음악의 한 장르이다.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이제에는 기독교 문화가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양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즐거움을 향해 돌진해 나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더욱 암울한 것은 그 가운데 본래의 목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간의 충분한 교제에서 떠나 세상의 즐거움을 익숙해져 버렸다.

언제나 코밤이 개최되는 무렵이면 이러한 현상이 고등부에서 표연으로 부상한다. 내가 임원들과 코밤을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행사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지도자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주제를 어떻게 잡았어?”, “천년이 두 번 지나고... 그리고, 천국”이요

“그러면 이 주제에 맞는 행사의 목적은?”, “‘교제와 전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뻐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

민지 같은 우리의 친구들과 또 우리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사의 주제와 목적이 분명해졌을 때, 나는 임원들과 발명보서 1장 3~11절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코이노니아 밤’ 이야기

이 사 라 (고등부)

11월 17일, 고등부 ‘코이노니아의 밤’이 있었던 날이다. 다른 애들처럼 나도 태신자를 적어 보았다. 2명. 지금까지 작정했던 태신자 수 중 가장 적은 숫자다. 그만큼 확실하게 이들을 전도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수능 잘 보고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정성껏 엽서도 쓰고,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 문자로 보내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렇게 어느덧 수능도 끝나고 코이노니아가 일 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난 친구들에게 초청장을 건네주며 꼭 오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 나는 내 태신자를 위한 영상편지를 준비했다.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내 친구들에게 말로는 하기 어려운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당일. 친구들이 일산에 갈 일이 생겼다고 했다. 청, 천, 별, 력! 영상편지까지 만들었는데, 그 동안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문득 내 영상편지만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순서가 일찍이어서 친구들을 겨우 설득했다. 오갔다는 말에 “그래도 하나님은 다 길을 만들어 주시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다 됐는데도 친구들이 오지 않아 다급했지만 다행히도 친구들은 영상편지 순서 바로 전에 도착했다. 영상편지 시작!

그런데 이진 또 왜 일이지? 잘 들리지 않았다. 내가 꼭 해주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친구들, 나도 당황한 그 순간, 복사남에게 친구들을 부르서 기독교에 한 발 더 다가갔으면 ‘아멘’을 하라고 하셨다. 망설이는 친구들. 강요하는 것 같았던 모양이다. 부당해서 못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친구들은 가버렸다. 하나님은 원망스럽게까지 했다. 그 이후 때 보다도 최선을 다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친구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어려워하던 친구들이 아니라 오히려, 신적이요, 그 신자에 하나님은 나를 쓰신 거라고.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어느 때보다도 깊이 느꼈다. 다시 노력해 보기로 했다. 솔직히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질까봐 겁도 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나 내 도를 생각할 땐 돼. 강압적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아니신가? 난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내 친구들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담대하게 전할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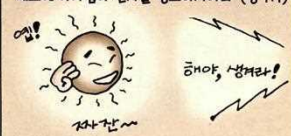
박 철 흥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만평

글·그림·이중환

만음 하나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만일 '민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음 둘 -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희 열매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의 능력이 너희 열매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열매요리라”
(눅 1:35)

만일 '민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기를

김 영 은 (고등부)



얼마 전 우연히 어느 선생님의 글을 읽던 중 “일시적인 것 위해 하나님께 섬김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보았다. 생각해 보면, 지금들만 한 하나님께 섬김감만을 안겨드리면 된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변화가 느껴진 건 중 1학년 말부터이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내 모습은 달라진 게 없었다. 교회에서는 좀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지만,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중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내게 물었다. “하나님을 전파로 믿어?” 비꼬는 말투였다. 난 이 질문을 듣고서 한참 당단을 생각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대답도 못했다. 내가 그 애 앞에서 꼭 먹은 병어리처럼 그저 묵묵부답 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라 그 친구의 반응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난 지금까지 친구를 전도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것 또한 친구들의 눈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내가 전도를 하려고 다가가면 친구들이 나에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가 늘고 마음을 움츠리게 해 주었다. 그래서 난 전도하러 노력하지 않았다.

그때는 알파한 내 믿음에 무엇이 더 두려운 것인지 몰랐던 거다. 친구들의 냉랭한 반응보다 하나님의 섭섭해 하심을 더욱 두려워했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내가 상을 받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말 친구들을 위한 전도라는 것을 말이다. 또한 내가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는 동안 그들이 점점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보며 더욱 간절히 그들을 전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 주위엔 아직도 하나님 믿기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주님을 자신있게 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소원한다. 또한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할 한하며,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는 내가 되길 소망한다.

금주부터는 '인물로 본 교회 순례사'를 마치고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현재 우리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사] 조선의 첫 선교사 '언더우드'가 본 조선의 첫 인생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루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 곳,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상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이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던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냈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불 기회가 없으면 어쩔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셨습니까.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알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 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사냥 구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을 믿나이다.
지금은 에베르드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 곳이 머지않아 온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세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한 동 익' 형제를 소개합니다

자영업업을 하고 있으며 아내, 딸 셋과 개봉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가족마다 다니는 아내와 담임교사인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새가족부의 말씀과 성경공부, 여러 선생님들의 친절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민 인 배' 형제를 소개합니다

73세 할아버지입니다. 딸이 예수님 믿으라고 성경도 사주며 전도를 했으나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천령교회 어느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의 웅장함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부에서 성경공부를 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행지 모르게 불안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한수정 (새가족부 통신원)

막달라 마리아

김 남 조

죄와 슬픔의 여자
일곱 구신이 둘 속에 살아
일곱 구신 가진 곳을 하던 여자
모두 침몰면
이별 수가 차마 없을
적막한 여자

일곱 번의 일곱 길잡
나침을 사랑해
끝내 한 사람의 영혼과도 못 만난 여자
어둠과 더 추워서
누구와도
다르던 여자

눈물이며는
눈물로 감아 빗은 머리채에는

잘 비벼 적시는 감강유(甘香油)에는
아미, 탄알보다 줄이든
평생의 죄 모두 참회하는

주님의 빛에
간절히 한만만 달아보게
하락하시옵지

신(神)을 사랑한
세상사람의
여자 마음이 여자 마음이
천만 줄기의 냇물의 지하수의 더 깊은 데에까지
끓는 단맛의 피로 흘러 흘러서
진혼의 곡죽(爆竹)
천하 삼월의 꽃나루로
저염(漣)이 솟아난다.

시를 읽고나서...

여자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가장 사랑하던 제자였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어두운 그늘에서 갇혀 살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생명의 사랑의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의 길을 동행해 줄 수 있는 죄와 저주의 슬픔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서 체험해 왔을 것이다.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찢겨지실 발에 부은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보는 은총을 받았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만약 내가 죄를 짓고 순결한 생활을 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마리아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이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죄를 많이 짓고서 회개를 잘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짓기 전에 깨닫고 돌아서기 위해 주신 것이다.
(유숙희, 심도)

+ 양오실

-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 (눅5:18-20)

3교구 손일생 집사(여65세) 직강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빨리 회복되고 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교구 한정자 성도(여61세) 혈소판 감소증으로 자가 치료 중입니다. 병이 치유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최수영 집사(남55세) 간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6교구 홍동선 성도(남57세) 갑상선암 3기입니다. 믿음으로 낙망치 말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권요셉 평신도 선교사(남26세) 폐결핵과 늑막염으로 입원 치료 중입니다. 폐에 한 물음 빼내야하고 계속 물이 잘 경우 수술을 해야 합니다. 체력이 회복되어 수술하지 않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한 중증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지만 모인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자 지붕을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완유뿐만 아니라 하나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로 귀가 기울이고 응답하십니다.

239장 사랑의 하늘 아버지

영국의 여류 작가가 작가인 앤 셸리 작지만 이 찬송가는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배경이 되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돈부에 입은 상처로 평생의 거의 불구가 가까운 정도로 고통을 하였다. 또한 결혼식 전날 악환자를 입기도 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양가에 신랑이 입사했다는 연락이 왔으나, 결혼식이 장례식으로 바뀌었고 축하하는 조객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과연 하나님의 섭리라고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녀는 이런 시련 속에서 계시는 주님의 인자한 얼굴을 바라본 것 같다.

- 1절 '자비하신 아버지여, 당신의 말씀에는 참으로 무한한 영광이 빛나나이다. 하늘의 천군으로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 2절 '여기 가라하고 굴뚝만 우리에게 다함없는 배(背)를 향해 찾게 하소서. 이 땅이 줄 수 없는 부요, 마음에 영원히 만족를 주는 부가 되게 하소서'
- 3절 '여기 구세주를 환영하는 소리와 하늘의 평화사 두루 퍼지고 생명과 영원한 기쁨 그리고 행복 한 소리를 들으소서'
- 4절 '하늘의 말씀, 언제나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늘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며 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 5절 '거룩한 찬양 자비하신 주님이시여, 늘 가까이 계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만 사랑하게 하시고 그 기쁨의 내내 구세주를 보게 하소서'

이 찬송의 대대대는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한난 풍파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힘이 있으면서도 전형적인 3박자의 곡답게 아주 부드럽고도 은은하게 가사가 들릴도록 불려야 할 것이다.
(한영리(한복))

나의 안에 거하라

조 우 현 (사랑부 교사)

부족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다. 사랑부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고백은 더욱 깊어졌다. 사랑부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한 7년 동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어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

'심상가상' 혹은 '열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처럼 한꺼번에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다. 나 역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의 갈등을 겪게 되었다. 직장동료와 상사와의 갈등이 풀리지 않았을 것만 같은 신앙생활의 문제들과 겹치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젠 잃을 것도 없다', '생각하지 말자. 남은 것만을 생각하자', '더 이상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계속 머리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고등학교 때 잠깐 가 보았던 사랑부가 생각났고 즉시 사랑부에서 봉사를 시작하였다. 사랑부에서 장예우를 섬기면서 나의 마음은 은혜로 채워지게 되었다. 사랑부 학생들을 섬기다 보니 직장에서도 동료와 상사를 섬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벌써 7년째가 되었다. 올해도 거의 다 지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보면서 나는 사랑부에서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사랑부에서 장예우님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고 성경학교를 비롯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답나... (내가 그 많고 귀한 은혜의 사건을 짧게 글로 적을 실력이 안 되기에 아쉽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부를 통해 내 안에 있던 강박관념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나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인정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해 나 41:10-13, 사 43:1-4) 우현이는 하나님 것이라(내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내게 큰 힘과 위로를 주셨다

다시금 반성해 본다. 나는 장예원부서인 사랑부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자책도 입혔던가? 장예우님의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그들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며 그들과 함께 내 모든 것을 나누었던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니 진한 눈물이 흘렀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한결 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장예원 학생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부가 되었으면 한다. 장예원과 함께 우리가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다. 오늘날 사랑부 학생들을 온세게 하시고 도와 주시며 의로운 오순으로 불들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어 본다.

섬김

박 무 미 (권사, 에바다부부강)



에바다부는 장애라는 벼슬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떠나, 생존을 위한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 정말이지 그들의 삶은 옆에서 보기만 해도 간증이요 살아있는 설교가 된다.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에바다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힘써 주신 두 분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다.

"섬김"

분명 지금의 에바다부는 두 장로님의 섬김으로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이웃을 섬기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언젠가 장로님이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에게 많이 배웠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지요. 이제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니, 섬기러 왔다가 오히려 섬김을 받아서 큰일났다고 걱정하시며 겸손한 웃음을 보여 주신 것이 생각난다. 보통 사람들도 살아가기 힘든 이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며 섬김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좋은 일에 함께 웃고 슬픈 일에 모여 기도하며 정든 두 장로님이 이제 에바다부를 떠나신다고 하니 무척 서운하다. 어디로 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에바다부를 잊지 않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신한 천지기로서 충실히 살아가리라 생각한다. 아직도 첫사랑에 생생하게 된다.

"아니 근데, 저 선생님은 얼굴이 왜 그렇지? 무슨 일 있대요?" 안색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어느 교사의 안부를 장로님은 오늘도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신다. 아마도 오늘은 농아인인 그 선생님을 챙기고 섬기러 하시는가 보다.

Catechism

11. 유요한 부르심과 칭의에 관하여

(1) 유요한 부르심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자신에게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때마침은 비로소 그들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개개인에게로 요약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그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도 담미당은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물음 1.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깨설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십니다(롬 8:30).

물음 2.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믿는 자들을 불러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고전 1:21).

물음 3.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 때에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실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영원한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십니다(딤후 1:9).

(2) 칭의의 의미, 근거, 방법

하나님께서는 유요하게 부르신 이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담미당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므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들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게 하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셨고, 또한 동시에 죄를 반드시 멸하시어 하는 아버지의 공의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물음 1.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도 담미당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고후 5:18).

물음 2.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사 53:6).

물음 3. 칭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우사,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용진 전도사·고동부 부지도)

성경의 생

도나다(Obadi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또한 오바다를 읽을 때에 예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비탄만을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이들은 형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는데 발견하고 오히려 적군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예뻐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약탈하는데 내 반역이나 도왔는데, 대하 21:8, 16-17, 암 1:6에는 요한함 때에, 대하 25:11-12, 23-24에는 아미사살 때에, 그리고 대하 28:16-21에는 아하스왕 때에, 대하 6:11-21, 시 137:7에는 시드기아 때에 약탈을 도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예'가 그러했듯이, 그의 후손들이 '예뻐' 족속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하고싶은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라며 그들을 거절하신 것입니다(창 25:33, 말 1:3, 롬 9:13).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오늘의 내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행동한다면 하나님께 책망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사시합이 없고 고만하여 목이 높은 백성들, 그래서 지금은 독수리와 여우들만 사는 곳으로 패배해 버린 예뻐들! 유예에 충고했던 엘리바스의 예수 그리스도를 반신하인 해로, 이들을 두드 역시 이 예뻐를 출신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예뻐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바다를 읽으시면서 신앙생활이 전하는 아담과 같은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행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벧전 1:22).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가운데 없다' (요 1:9).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행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요일 3:1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그 행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행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기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요일 4:20).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요은히 하나님에 고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창 4:6).

김동하 목사(출판국 지도)

교 회 소 식

알림

- 2001년도 제6차 학습·세례식 안내
2001년도 제 6차 학습·세례식이 16일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입교·개종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담당교역자에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 정로 필요세례기도회
일시: 3일(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9호
- 인수집사회 화요일세례기도회
일시: 4일(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9호
- 감사위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교육관 208호
- 경향전도의 월례회 및 총회
일시: 9일(다움주일) 15:00
장소: 매추리교회
- 인수집사회 월례회 및 총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교육관 212호
- 권사 1, 2교회 월례회
일시: 15일(수) 수요일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남녀전도회

- 바울 5교회 월례회
일시: 9일(다움주일) 15:00
장소: 산호재장부실
- 바울 6교회 월례회 및 총회
일시: 15일(토) 17:00
장소: 충현교회 안 태백산식당
- 바울 10교회 월례회
일시: 15일(토) 18:00
장소: 종전
- 바울 17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육관 401호
- 베드로 17교회 총회

- 일시: 8일(토) 17:00
장소: 수지 두루마울 ☎(011-725-5146)
- 요한 17교회 월례회 및 총회
일시: 8일(토) 18:00
장소: 김복호 집사(구미동 ☎75-7644)
 - 한나 1교회 월례회 및 총회
일시: 6일(목) 11:30
장소: 영아부실
 - 한나 4교회 월례회
일시: 6일(목) 11:30
장소: 만수동
 - 에스더 17교회 월례회 및 총회
일시: 6일(목) 11:30
장소: 헤비리
 - 마리아 3교회 월례회
일시: 7일(금) 11:00
장소: 교육관 109호

발세

- 장유례 타교집사
(학기종 안수집사·장모, 정경숙 집사의 모친, 8교구 마장교구) / 11월 21일 밤세, 11월 23일 장례
- 임화례 타교집사
(최영순 성도 모친, 8교구 송정교구) / 11월 23일 밤세, 11월 25일 장례
- 오은문 성도
(이소현 권사의 모친, 11교구 필동2교구) / 11월 25일 밤세, 11월 27일 장례
- 유근환 타교집사
(황기용 집사 장모, 오화자 권사의 모친, 14교구 여의도교구) / 11월 26일 밤세, 11월 28일 장례
- 조진영 장모
(조진근 장모 부친, 김영자 권사의 사부, 11교구 용산교구) / 11월 30일 밤세, 12월 3일 장례

주소변경

- 윤 배 집사, 신혜은 집사 경기도 용인 기흥읍 상갈리 461 대우 현대(☎110-1503 ☎31-287-0935)
- 김문암 집사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성원프라자 2층 212호 김용현 헤어샵 ☎31-764-2073

다음주 세례기도회 기도 담당

3(월)	4(화)	5(수)	6(목)	7(금)	8(토)	9(주일)
전종현	신기만	이선우	김진국	유운주	강덕필	김정신

충현동신(모지) 신약해설 봉

지역: 남지 세례교인으로서 58세 미만
문의: 사무국 ☎552-8200 교과406

청년2부 예수마침 초창 정치

일시: 9,16,23일 12:20~15:00 장소: 제2교과관 1층

보니영 중창단원 모집

군부대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을 찾습니다.
파트: 소프르노 2명, 멜로 2명 대상: 50세 이하 여성
연락처: 심승덕 집사 ☎11-247-4398

교회 오시는 길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주회, 화이동동시예배)	
	IV 오후 1:00(대우동시예배)	본당
찬양 예배	오후 5:00	본당
	오후 5:00	본당
	오후 5:00	본당
수요 예배	1:00~11:00 오후 7:00	본당
금요일 예배	오후 7:00	본당
세례기도회	오전 5:00	본당

성·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지철	조선근	김은호	노광현	오건국
신교현	김복호	최대환	임철성	강도용
이병학	유인환	최대환	임철성	강도용
오정현	이 훈	남선우	장운석	김영길
문홍구	조진경	김종구	최무길	김진채
이창호	차진득	김재명	박명식	김광남
이종서	윤성철	이하영	박민진	김도원
이병욱	안종욱	최명환	임두선	이종섭
최기홍	이갑재	전홍훈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손 철	한승규	김영수
정종식	김기환	한승규	이형수	안동원
황완만	김기환	최은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종규	권명옥	조종환
배준식	김영달	이철호	박찬섭	최지훈
노영한	박철길	정철길	신상수	강철형
고계순	김영은			

■ 부목사

이홍성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서광진	정혜성	이준경	박기진
여성기	류병태	노경숙	이종철	김영동
여국근	김교섭	송기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재환			

■ 찬양감독 강민규

■ 여전도사

정연희	김경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김옥순	한영준	김현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혜순	최희성	백명자	김정연
조옥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최무선

■ 교정전도사 박양덕

■ 선교사

■ 협력선교사

2001년도 제6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이세례자	장소
12월 2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김교성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서광진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기독교론 (정혜성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이종대 목사)	교육관 307호		
12월 9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준경 목사)	교육관 407호	세례론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유이세례자 (이종성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12월 16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본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베다니홀)			

남녀전도회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2001년 12월 첫주~2002년 1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1년 7월~11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교육관 1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2001년 11월~11월), 교구출납부, 원장, 영수증 등

새·가·족·을·함·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977	라벨링	1	바울	이영환(2)	988	서광진	19	청년부	
978	정종태	1	베드로		989	이정아	9	예배당	박달원(17)
979	국인진	3	청년부	이봉(3)	990	김순자	9	예배당	박달원(17)
980	유영주	4	바울	고옥자(4)	991	정재희	14	한나	임정희(9)
981	신동숙	13	한나	홍은자(9)	992	오홍호	14	바울	홍정희(12)
982	신동숙	13	바울	홍은자(9)	993	김지봉	17	바울	남선우(3)
983	송연수	13	소방부	송광자(3)	994	남달남	17	에스더	남선우(3)
984	정금배	13	소방부	송광자(3)	995	박광원	15	청년부	
985	변희정	14	대학부		996	임백진	19	청년부	
986	장영일	19	청년부	김정환(1)	997	권진주	12	마리아	황방자(3)
987	박진영	19	청년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3층 3기주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